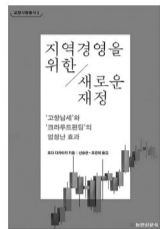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제, 독자적 재원강화·인구유입 효과

## 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

호다다카야키 저·신승근, 조경희 역 | 농민신문사 | 2만원



“기부자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열기가 뜨겁다.

기부자들의 성원은 내년부터 실제 사용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기부금 투입 사업지정, 법인 참여 제한 해법을 위한 법안 개정 등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정책 담당자들과 실무자들을 위한 단행본 ‘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이 출판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은 농민신문사의 ‘고향사랑총서’ 시리즈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자금조달’을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여러 연구결과를 정리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역 인구의 유출로 장기적인 노동인구



농협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24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설 귀객객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쌀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갖고 무안 황토랑쌀, 담양 대숲맑은쌀 등 전남 10대 브랜드쌀을 나눠주고 있다. **나건호 기자**

감소 및 생산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줄어드는 소비와 경제적 활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물건·자

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책은 지역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을 꼽는다.

제1장과 2장에서는 고향납세가 사업자

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해 대체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검증한다. 고향납세가 담례품 제공사업자의 자금조달 개선과 사업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시민참여형 지역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는지, 이로 인해 인구 변화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혀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유용성을 검증한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고향납세 담례품을 통한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효과와 그에 의한 지방 사업가정신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고향납세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의 증가에 필요한 항목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창업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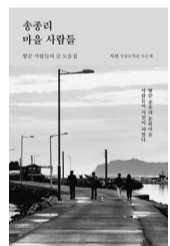
제7장부터는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내용이다. 이밖에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기여정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인식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사례 등도 소개한다.

지역에도 ‘경영’의 관점이 필요하다. 책에는 일본에서 고향납세를 활용한 정책으로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를 본 지자체도 등장한다. 독자적 재원 강화, 인구 유입 등 지방 회생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선인 기자**

## 땅끝 사람들이 담아낸 일상의 소중함

### 송종리 마을 사람들

최정수 외 | 천년의시작 | 1만6000원



땅끝 해남 송종리 사람들이 시인이 됐다. 그곳엔 마을 사람들 모두 읍유 시인이 되기에 넉넉한 저녁노을이 있다. 땅끝 앞바다에 인생의 고달픔을 삼켜온 송종리 주민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풀어냈다. 투박한 팔뚝을 내보이는 김미경 아저는 단 녀 줄에 세상과의 팔씨름을 풀어냈다. 팔뚝만큼은 깨끗하고 드세도 세상과의 씨름은 팔이 아니라 뚝심으로 하는 거란다. 세월 가득한 얼굴의 박공심 할매는 마음만 꽃다운 새색시 고백한다. ‘송종리 마을 사람들’은 시집 전문 출판사 ‘천년의시작’에서 나온 첫 사진집이다.

1985년 KBS TV문학관에 ‘행려자’라는 극본이 뽑히면서 글 쓰는 일이 전직이 된 전직 경찰관 박병두 작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해남으로 귀향한 그는 그곳에서

작가 레지던스 ‘인송문학촌 토문재’를 열었다. 박 작가 주도로 묶여낸 ‘송종리 마을 사람들’은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입주 작가들을 비롯해 해남 출신의 공직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해남 관련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지점은 해남군 삼산면 송종리 마을 주민들의 솔직한 시편과 일상의 순간을 담아낸 사진들이다. 독자들은 이들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글들을 통해, 마치 송종리 마을로 긴 여행을 떠난 듯한 정취에 젖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행려자’라는 극본 입선 이후 박병두 작가는 1990년 ‘문학세계’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92년 ‘월간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1996년 ‘문학세계’를 통해 다시 시인으로 등단, 1998년에는 첫 장편소설 ‘우리 상자 속의 외출’을 내놓았다. 2015년 경찰 퇴직 이후 사재를 털어 해남에 인송문학촌 토문재를 열었다. 2022년 2월부터 입주 작가들의 입소가 시작했다. 이는 해남에서 인문정신을 회복시키겠다는 박작가의 포부다. **도선인 기자**

## 삶의 상처·결핍 치유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순간들

### 그늘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

고선주 | 걷는사람 | 1만2000원



“버려진 이불이 전부인 빈집에 머무른다 하늘을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빈집에서 빈 꿈을 꾸고는 깨어났다”

걷는사람 시인선 76 번째 작품으로 고선주 시인의 ‘그늘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가 출간되었다.

고선주 시인은 삶을 둘러싼 현실의 그늘을 인지하면서도 세상을 감싸는 한 줄기 온기를 놓치지 않는 끈기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이번 시집은 새로운 삶의 향방을 모색하는 동시에 부채진 삶의 부정성으로부터 삶을 지켜낼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동안 펴낸 세 권의 시집에서 한결같이 엮보였던 좌절을 근간으로 한 삶의 깊은 상실이 더욱 분화하고 있는 동시에 일상의 복원을 갈구한다.

시인은 적확하고도 서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모두들 흔들리지 마라라고만 말하네/누군들 흔들리고 싶은 사람 있을까”(안락의자)로 시작되는 시가 특히 그렇다. “되레 흔들리지 않기 위해/어느 날 집에 흔들거리는 안락의자 하나 들여놓았다”는 시인은 위로나 공감을 구하는 대신 “여전히 안락의자 위에서/흔들거리는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보듬는다.

시인의 고요하고도 진솔한 위로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시집에 수록된 여러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는 ‘집’과 ‘오르막’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 듯 보인다. “흙집은 공평하지 않던 세상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기억에서 매몰되던 그 집)라는 말처럼, 시인은 따뜻함을 포기하기 쉬운 현실 속에서도 서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오로지 시인의 마음가짐으로 “다만 오르막을 오를 때는/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오르막길)라는 진술을 통해 삶을 대하는 시인의 주체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추천사를 쓴 이병국 시인은 고선주의 시집에서 “세계의 강제로부터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본다.

또한 “삶에의 긍정은 부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의 새로운 시집을 향해 찬사를 보낸다.

‘시인의 말’은 “긴 꿈에서 막 깨어났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고선주 시인에게 당도한 긴 꿈은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을까, 그 꿈에서 깨어난 시인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까. 이제 시인은 선부른 위로 대신 우리를 향해 긴 꿈을 넘겨준다.

“몸을 기대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세상”(의자의 해석)에서 조차 “은 세상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은/때 묻지 않은 사람들이 추워서 떠는 일 없기를 희망한 때문”(사계에 대한 아포리즘적 정의)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시인의 따뜻한 여정에 발맞춰 보기를 권한다.

**도선인 기자**

### 서양철학의 역설

김성수 | 바람꽃 | 2만5000원

독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던 김성수 철학 박사가 이분법적인 내용으로 정리되는 서양철학의 근원을 지적한다.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시각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역설에 빠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유럽·동아시아를 망라한 세계적 경제위기, 한반도에서 남북 충돌의 고조까지. 이러한 상황은 이분법적 서양철학, 이에 기반한 세계의 학문, 정치, 경제와 문화의 역설 현상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서양철학의 역설’은 그 해결의 길을 찾아 나선다.



###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경혜 | 보리 |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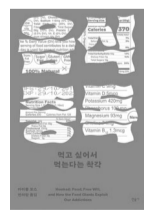
소설가 이경혜의 첫 에세이집. 이경혜 작가는 열세 살부터 비밀 일기를 쓰기 시작해 50년째 150권이 넘는 일기장에 꾸준히 일기를 써왔다. 숙제처럼 생각되는 일기를 끊임없이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느 날 쓰기 시작한 일기가 어떻게 습관이 되었는지, 일기를 쓰면서 남달리 경험했던 울고 웃는 에피소드들을 책 속에 함께 담았다. 새해에 일기 쓰기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한다.



### 음식 중독

마이클 모스 | 민음사 |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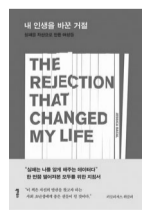
담배나 약물처럼 음식에도 중독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한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간편식, 인공감미료, 인공 향료가 장악한 현대의 식단이 우리의 미각과 신진대사를 교란하고 있다. 햄버거 오염 보도로 2010년 폴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마이클 모스의 ‘음식 중독’이 출간됐다. 기업 회의실부터 식품 공장, 법정, 의회, 실험실을 넘나들며 음식 중독의 생물학적, 사회적 원인을 밝히는 이 책은 독자들이 식습관의 주체성을 되찾게 나아가도록 돕는다.



### 내 인생을 바꾼 거절

제시카 배컬 | 북하우스 | 1만6500원

실패를 겪은 뒤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한 이들,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시도 중이거나 이제 막 진입한 이들, 경력 중간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나 침반 역할을 해줄 필독서가 출간됐다. 책에는 성공적인 경력을 거머쥔 여성 29명이 등장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거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커리어 도전, 변화, 성공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책은 거절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뒤에 더 나은 기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아시아로부터의 통신

서정민 외 | 동연 | 1만5000원

TK라는 필명으로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5년간 일본의 진보 학술잡지 ‘세카이’에 달마다 독재정권의 실상과 민주화운동의 경과를 연재했던 지명관 교수. 그를 추모하는 글을 엮은 ‘TK생지명관 아시아로부터의 통신’이 발간됐다. 지 교수가 생전 교류했던 일본의 문화계, 정계, 교육계, 종교계 등의 사람들이 모인 추모 모임이 이 책의 모체가 됐다. 또 선생의 서거 직전에 머물렀던 양평의 거주지의 소탈한 일상 사진을 비롯해 미공개 사진을 담아 화보를 만들었다.

